



4 선도학과(?) LD학부 들여다보기    6 대학가 청소노동자의 현주소    8 SNS 그 변화의 끝은?    12 외대더비, 두 주인공



양 배움터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릴레이 특강이 시작됐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흡스프로세미나(HUFS Proseminar)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왼쪽 사진은 글로벌배움터에서 기존의 신입생세미나 과목과 연계해 신설된 '외대 비전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 날 강의에서는 경력개발센터, 학생감동팀, 학사종합지원센터의 담당 강사가 대학생활의 팁과 학습법에 대해 유익한 설명회를 가졌다.

김태훈 ·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정시생은 낙동강 오리알? 수시생, 재학생도 편하지만은 않아

이번 해부터 광역 모집된 서울배움터 서·동양어대학 정시입학생 사이에서 미흡한 신입생 관리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가장 큰 원인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해당 단과대학 신입생들이 1학기 동안 학부생 신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2학기에 전공을 선택한다. 학교 측이 광역화 모집의 강점으로 내세운 유럽 혹은 아시아 전반의 문화에 대한 지식, 경험 전달과 전공 언어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은 부실한 학생 관리로 빛이 바래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시입학생은 과가 정해지지 않아 한 학기 동안 이끌어줄 소속 선배가 없다. 동양어대학 신입생인 조현준 군은 "터키어과 수업을 듣는데 수시입학생들은 선배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을 받기 용이하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게다가 공간 시간에 정시입학생을 수용할 공간도 없다. 서양어대학의 경우 처음에는 정시입학생들의 과방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과방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학과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수시입학생들과 달리 이들은 학교 주변을 배회했다. 현재 정시입학생들을 위해서·동양어대실이 마련됐지만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양어대학 신입생인 최민지 양은 "정시입학생에게도 과 동아리와 과방을 개방했지만 2학기에 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섯과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과방을 이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동양어대학 학생회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시입학생들은 20여 명 단위의 반으로 묶여져 있고 각 단과대학은 재학생 중 멘토로 활동할 선배를 선발해 각 반에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반에 배정된 서너 명의 멘토 선배가 정시입학생을 모두 챙기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학과 선택의 경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정시입학생들을 불안하게 한다. 동양어대학 신입생인 박성혁 군은 "현재 지망하는 과의 수업을 미리 듣고 있는데 인기학과라 경쟁이 치열하다"며 "경쟁에서 밀려 학과 선발에 탈락하게 되면 한 학기를 헛수고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서양어대학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 신입생 교과과정에서 정시·수시입학생 구분 없이 유럽 전반에 대한 언어·문화·지역·문학을 가르치는 '기초 공통과목'만을 들도록 한다. 개별 학과의 수업은 언어가 아닌 문화사 수업만을 개방했다. 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김소정(서양어·프랑스어 14) 양은 "선발 시 학과 언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개강을 앞두고야 알게 돼 당황했다"고 말했다.

정시입학생들은 현재의 제도에 불만이 많았다. 조현준 군은 "현상 유지보다는 앞으로 학생 관리나 수업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양어대학 신입생인 김지원 양도 "정시생들의 학교생활을 관리하는 부분을 대비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 산업경영 공학과 교수

### '2013년 국제저명학술지 부문' 전국 1위

우리학교 산업경영공학과가 2013년 전임교원 1인당 국제 저명학술지 SCI-Scopus 게재 논문수가 1.22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해 조사·수집해 공시하는 '대학알리미'의 조사 결과로 우리학교를 선두로 아주대, 포항공대가 뒤를 이었다. 또한 2013년 국제저명 학술지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교수 연구부문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SCI 급 논문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사에서 제공하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 데이터베이스로 국제적인 영향력과 높은 재 인용률을 기준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으로 볼 수 있다.

김문수 산업경영공학과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학생, 교수, 조교 등 학과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돼 교수들이 교육·연구·봉사에 더욱 충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취업부문 등에서 내쫓던 좋은 성과에 부흥해 이번에는 교수들도 좋은 성과를 내 뿌듯하다"며 기쁨을 전했다.

전국 산업경영공학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순위	학교명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저명 학술지 (SCI-Scopus) 논문 수
1	한국외국어대학교	1.22
2	아주대학교	1
3	포항공대	0.96
4	부산대학교	0.94
5	서울대학교	0.9
6	연세대학교	0.59
7	성균관대학교	0.67
8	고려대학교	0.61
9	송실대학교	0.58
10	전국대학교	0.51

자료: 2013년 대학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뿐만 아니라 산업경영공학과는 '2014년 대학 정시 다군'에서 14명 모집, 130명이 지원해 9.29대 1의 경쟁률로 우리학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또 2010년 글로벌배움터 취업률 1위를 차지한 이후 2010~2013년 평균 취업률 80%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QS 세계대학평가 우리학교 현대 언어학분야 세계 29위

지난 2월 25일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4 QS 세계대학평가'중 현대 언어학 분야에서 우리학교가 세계 29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학교가 국내대학 중 현대 언어학 분야에서 1위로 크게 상향한 결과다. 지난 해에는 우리학교가 고려대와 함께 현대 언어학 분야에서 51~100위권에 머물렀다. 우리학교는 언어와 국제지역분야가 잘 발달돼 있는 반면 △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분야에서는 세계 20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QS 세계대학 순위는 △학계와 졸업생 평판 △연구영향도(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지수)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교수 대 학생 비율 등을 합산해 세계 대학의 순위를 정한다.

우리학교는 '2012 QS 세계대학평가' 중 국내종합대학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해에는 QS와 조선일보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QS 의대 없는 종합 대학평가'에서 4년간 연속 1위, 'QS아시아 대학 중 국제화' 종합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해 이번 해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영 기자 88dbsdud0799@hufs.ac.kr

## 열정과 패기로 뭉친 신입기자를 찾습니다!

### 외대학보사 89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2014년 3월 17일(월)~3월 28일(금)

모집대상: 양 배움터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학생

지원서 마감일: 3월 28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3월 29일(토)

합격자 발표일: 3월 30일(일)

####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3112

문의사항 연락처: 신민지 편집장(010-4002-0299)



▲외대학보사 마감날 새벽, 어두운 교정에 외대학보만이 홀로 밤을 밝힌다. 자유언론 정문지필 기초 아래 우리학교의 공기(公器)인 외대학보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오늘도 밤잠을 쫓으며 기사작성에 매진한다.

학내 브리핑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이 3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신·편입생,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 및 복학생이다. 선발 기준은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한 학생 중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진학학기 평점 2.5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며 신·편입생의 경우 평점 및 학점 제한이 없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다.

금연 성공 보건의소에서 도와드려요

서울배움터 보건의실에서 동대문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협조해 금연상담을 실시한다. 금연을 희망하는 교직원과 학생은 21일까지 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4월 중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자에게는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상담을 통한 행동수정요법 △금연 보조제 무료제공 등의 다양한 금연방법이 제공된다. 상담일정이 끝난 후에도 SMS 문자발송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연성공사례에 한해서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배움터 보건실(02) 2173-2139로 문의하면 된다.

생협 조합원증으로 할인받으세요!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이번 학기부터 교내 매점 및 식당 사용 시 조합원증 바코드를 활용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적립금은 구매금액의 2%이며 포인트 차감해 할인 받을 수 있다. 조합원증은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oop.hufs.ac.kr)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형태와 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카드는 500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학생 식당 결제 적립은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 일정 확정

현재 공석인 서울배움터 제 48대 총학생회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가 후보자 부재로 무산돼 치르는 재선거다. 18일과 19일 양일간 오전 9시~오후 6시 추천 및 입후보 절차가 진행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0일 오전 6시~4월 1일 오전 12시다. 투표는 4월 1일과 2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가능하며, 투표율이 성사 요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예비일 2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선 공고는 4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숙사생의 안전이 제일이죠”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기숙사생회 동거동락이 지난 5일부터 기숙사생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지난 해 1학기부터 시행된 야간 순찰은 사생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다. 이는 기숙사내 소음근절이 본래 취지였다. 기숙사 구조상 조급한 소리가 커도 위층까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못했지만 지난 5일 학교 측에 첫 번째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사생회는 밤 11시 30분부터 기숙사가 닫는 새벽 1시 반까지 12명의 학생들이 남녀 2인 1조로 기숙사 주변을 돌며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곳을 중심으로 순찰한다. 더불어 기숙사내 음주나 소음을 발생

시키는 학생을 제지하고 기숙사로 귀가하는 학생과 동행하기도 한다. 사생회 야간 순찰대는 학기 종료까지 매일 활동하며 비교적 기숙사생들이 적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빠짐없이 순찰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이다. 페이스북에 야간 순찰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 뒤 일주일도 안 돼 게시물에는 좋아요 수가 100여개가 넘었고 기숙사생 역시 좋은 반응을 내비쳤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정다연(경상·경제 13)양은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면 기숙사 주변이 어두워 무서웠는데 순찰을 도는 사생회 덕분에 마음 놓고 다닌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순찰제가 완전히 구체화 된 것은 아니다. 사생회는 사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2주간 매일 쓴 순찰일지를 점검해 개선점과 보다 효율적인 순찰을 위한 점



▲사생회 야간 순찰대는 순찰봉과 함께 파란색 비람막이를 입고 순찰을 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백은종(동유럽·형가리어 09) 남사생장 이다영(공과·산업경영 11) 여사생장 이재현(통번역·독일어 08) 총사생장의 순찰 모습이다.

검 규율을 정할 계획이다. 이재현(통번역·독일어 08) 기숙사 총사생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숙사생들의 반응이 좋아 기쁘고 그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순찰을 돌테니 지켜봐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사생회는 기숙사내 어두운 곳 가로등 설치와 A동 입구의 엘리베이터 문제 등 기숙사생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다정 기자 88ctis@hufs.ac.kr

대학원 등록금 인상 철회운동 일시정지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등록금 인상철회운동을 잠정적 보류했다. 지난 5, 6일 대학원 총학과 김성수 기획조정처장, 강준영 대학원 교학처장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 관련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대학원 총학은 △장학금 인상 △석·박사 연구실 증축 △교비인상을 조건으로 대학원 등록금 인상 철회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4일 대학원 학생대표의 참석 없이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문제에 대해서 총학회의록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대학원 대표자도 무조건 등심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성수 기획조정처장의 답변이 명기됐다. 강준영 대학원 교학처장은 “대학원 학관사업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원 총학은 2월 4일 대학원 학생 대표자 없이 이뤄진 등심위와 대학원 등록금 2.9% 인상에

반발해왔다. 학내에서는 일반대학원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보류를 요청하는 대자보를 부착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외에서도 전국대학원 총학생회협의회 소속 5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국회의원 앞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 철회와 일방적인 인상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등록금 인상 철회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결국 총학이 학교 측과 합의하면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이자 등록금 인상 철회를 기대했던 대학원 학생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반대학원 조 모양은 “동결을 위해 끝까지 힘써주길 바랐다”며 “결국 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굴복한 것”이라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편 장한민(일반·경영 13)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철회운동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건들이 실행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F학점 성적관리지침 변경 원활히 마무리

5일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변경된 성적 관리지침 확정안을 재공고했다. 이번 확정안을 통해 '14년 1학기부터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만 F학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13년 2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해 F학점이 포함되지 않은 성적표를 발급한다.

대학가에 성적 관리지침 변경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학들의 이중성적표 발급 현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월까지 학생성적 관리지침에 대한 시정 및 보고를 명령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달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F학점 제외 성적표 발급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당장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4학년, 졸업예정·유예자의 항의가 빚발쳤다.

양 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배움터 비대위는 문명재 서울배움터 교무처장과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종지 팀장에게 '졸업예정·유예자를 대상으

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배움터 비대위도 '14학년도 1학기부터 주는 학점에만 개정안을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교무처에 전달했다.

이에 김우승(서양어·네덜란드어 09) 서울배움터 비대위 부위원장장은 “양 배움터 이재원, 문명재 교무처장, 김미자 팀장에게 소급적용은 하지 말자는 취지로 면담을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4일 새로운 변경안이 확정됐다. 새로운 안을 통해 14년 2월 졸업예정자·유예자는 기존 방침대로 F학점이 제외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지난 달 27일 전체교수회의에 구체적인 성적 관리지침에 대한 논의가 간건으로 상정됐다. 현재의 확정안은 교수회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지난 5일 확정됐다. 김미자 팀장은 “현재 학생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다”면서도 “변경 안에 대한 향후 교육부의 반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4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4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고사장발표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예치금 등록기간
특별전형	2014.04.07(월)~04.11(금)	04.24(목) 14:00	04.26(토) 10:00	05.15(목) 14:00	05.19(월)~05.23(금)
일반전형	2014.05.12(월)~05.16(금)	05.29(목) 14:00	05.31(토) 10:00	06.19(목) 14:00	06.23(월)~06.27(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 \*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대학원 교학처 제출(우편, 방문 등)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교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 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하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 운영
- 사.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꽃샘추위 녹인 동아리문화제



▲운동장에 마련된 조정부 부스에서 학생들이 로잉 머신을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 10, 11일 양일간 동아리 문화제가 펼쳐졌다. 이번 동아리 문화제에는 동아리 78개 참가, 58개의 동아리가 부스를 열어 열띤 홍보를 펼쳤다. 국제학사와 도서관 앞

에 부스가 설치됐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에 김세원(동양어·인도어 10)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번 변화에 대해 “동아리를 하나로 모아 집중시키는 동시에 박람

회가 아니라 축제로 격상시켜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스를 관람하던 서양어대 신입생 김지원 양은 “동아리 이름만 보고 가입할 수 없는데 한 번에 많은 동아리를 볼 수 있어 선택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토순례반 부원인 서승연(서양어·네덜란드어 13) 양은 “이전에 국제학사와 도서관 앞에 부스를 설치해 행사를 진행한 때는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사람 외에도 공간 시간에 오며가며 흥미를 갖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이점은 없는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번 문화제에서는 학생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각 부스에서 설명을 들은 학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줘 25개를 모은 선착순 300명에게는 아메리카노 쿠폰, 50개를 모은 학생들에게는 경품 응모권이 주어졌다. 주점을 통해 CJ 상품권과 소니 헤드폰, 아이패드 미니가 지급됐다.

이어 11일에는 중앙동아리 노래나래, 새물결, FA, 하울 등이 참여한 ‘나무계단 콘서트’가 열렸다. 흐리고 추운 날씨에도 많은 학생들이 모여 공연을 즐겼다. 공연을 관람하던 김진수(상경·경

제 14) 군은 “고등학교 때 동아리들의 공연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공연의 높은 수준에 놀라워했다. 최문혁(사회·정의 10) 군은 락 밴드 외인부대의 일원으로 공연을 마친 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대중적이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는데 잘 보여준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품 추첨 자리에는 김시홍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이 직접 추첨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복지처장이 동아리 문화제에 방문했는데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처장실로 찾아오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겠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동아리 문화제를 진행한 김세원 동아리연합회장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고 싶었다”며 이번 문화제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날씨 탓에 일정이 당겨져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 이번 문화제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학생 손으로 커리큘럼 지킨다 영어대 커리큘럼발전학생위원회 만들어

지난 4일 영어대 학생회가 영어대학내 특별자치위원회로 커리큘럼발전학생위원회(이하 커발위)를 설립했다. 이번 해부터 서울배움터의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가 영어학부로 통합돼 발생하는 교과과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커발위는 재학생과 복학생의 재수강 및 전공 수업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교과과정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커발위 위원장을 맡은 홍지은(영어·영문 12) 영어대학 학생회장은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교과과정을 학생대표와 함께 의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커발위 역할을 밝혔다.

커발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3월 말부터 시작된다. 먼저 커발위는 소수의 신입생으로 구성해 재학생과 신입생 교과과정 전달 팁을 나눌 예정이다. 이는 영어대학 통합 전 교과과정을 수강해야 할 재수강자와 복학생을 신입생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3월 마지막 주부

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변화된 교과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과과정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피력하기 위해 교수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교수진 회의 때 학생대표 참석도 요구할 것”이라 홍지은 커발위 위원장은 말했다.

김한나(영어·영어 13)양은 이번 커발위 설립에 대해 “교과과정 보장은 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앞으로 권리를 지켜줄 커발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빈 영어통번역학과장은 “교과과정 구성과 개선에 대해 교수진이 끊임없이 회의하고 있는 사항”이며 “커발위의 활동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 양 배움터 샤워실 학생들 불편... 개조 시급해



▲왼쪽 사진은 글로벌배움터 어문학관 2층 여자 샤워실 천장 모습, 오른쪽 사진은 남자 화장실의 훼손된 가구 모습이다.

우리학교의 노후된 샤워실이 문제되고 있다. 서울배움터에는 사회과학관 지하, 국제학사 헬스장 내, 교수학습개발원 지하, 지하복합시설 지하 각 1개씩 총 4개다. 이 중 사회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내 샤워실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글로벌배움터는 어문학관, 인문경상관, 학생회관, 공학관, 자연과학관 총 5개 중 어문학관 샤워실 시설이 가장 취약하다.

교내 샤워실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편리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로 이어졌다. 시설노후가 문제가 된 샤워실은 실제로 지어진지 오래됐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1970년대에,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1980년대에 지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낡은 가구 및 시설이 늘어나는 데 비해 그에 따른 시설 보수 공사가 때맞게 진행되지 않아 학생이 샤워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배움터 어문학관 2층에

위치한 남자 샤워실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바닥에 담배꽂조들이 널렸고 남자 사물함이나 문짝이 떨어져 있는 등 시설 훼손 등으로 불쾌감을 준다. 여자 샤워실도 마찬가지로 천장의 훼손 및 노후된 기물이 문제다. 샤워실 내부에 낡은 빨랫줄들이 걸려 있어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문 또한 낙후돼 문을 여닫기조차 어렵다.

한편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지하에 위치한 샤워실은 남·여 구분조차 없어 학생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관 샤워실의 경우 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났지만 적절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동석 서울배움터 시설관리팀 담당직원은 “학교에서 적절하게 시설 보수를 못한 점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시설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은 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윤영 기자 88dbsdud0799@hufs.ac.kr

## | 학군사관(ROTC) 55·56기 모집안내

2014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 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5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6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 간 : 2014년 3월 3일 ~ 3월 31일
- 방 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 정
  - 1차 필기고사 : 4. 5 (토), 합격자 발표 : 4. 25 (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 28 (월) ~ 5. 15 (목), 합격자 발표 : 6. 5 (목)
  - 신원조회 : 6. 9 (월) ~ 8. 17 (일)
  - 최종합격 : 8. 21 (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1

오늘의선택  
내일의리더  
대한민국 ROTC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업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 선도학과 LD학부의 속사정을 살펴보다

10일 신입생 A는 학과 선배와 밥을 먹으러 가는 다른 신입생들을 부르듯 쳐다본다. 입학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캠퍼스 낭만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다. A는 언제나처럼 학과 동기들이 있는 사이버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사이버관 615호, 한 신입생들이 웅기웅기 모여 있다. 이번 해 서울배움터에 신설된 Language&Diplomacy(이하 LD학부) LD전공 신입생들이다. 사이버관 615호는 LD전공 학생들의 전용 강의실이다. 익명을 요청한 LD전공 신입생 A는 “과방도 없어 남은 시간이면 여기(사이버관 615호)에 모여 있거나 기숙사에 간다”며 “대학 생활이 고등학교의 연장선 같다”고 말했다.

LD학부는 외교관, 국제기구로 진출할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외교사관학교로 이번 해 우리학교가 야심차게 신설한 학과다. LD학부 학생들은 외교통상부와 국제기구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국내 유일의 고급 엘리트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는 앞으로 LD학부가 인문학 위기 속에서 우리 학교의 위상을 높이며 새로운 간판학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4학년도 정시 나군에서 LD학부의 경쟁률이 5.64대 1로 나군 최고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수험생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기대와 달리 LD학부는 신설 당시부터 LD학부 설립으로 폐지된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를 비롯해 최근 LD학부 학생회 분열까지,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본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LD학부의 상황을 짚어봤다.

## ◆ LD학부 두 학생회?

지난 해 3월 LD학부의 설립이 결정되며 당시 사회과학대학 자전이 일방적인 폐과 통보를 받아 자전의 시위가 시작됐다. 계속된 시위와 서명운동 끝에 자전은 신설되는 LD학부 사회과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당시 김학태 기획조정처장은 “학생들의 요구대로 자전과 LD학부가 연속성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LD학부는 LD학부 사회과학전공과 LD전공 두 분류로 나뉘어 두 전공은 공동학생회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이 두 전공은 LD전공 신입생 사이에서 LD전공만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사회과학전공과 달리 그들만의 학생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LD전공 신입생들은 여러 번의 회의 끝에 공동학생회가 아닌 독자적인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 LD학부 학생회장이 LD학부 학칙이 아닌 자전 학칙으로 뽑혔다며 회칙 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LD전공 신입생과 사회과학전공 재학생을 양측이 자리해 학생회칙을 제정한 뒤 새로운 학칙에 기반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LD학부 재선거에 대해 조봉현(사범·영

교 09) 서울배움터 비대위원장은 “지난 번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선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재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D학부는 이미 하나의 학부로 만들어져 학칙 상 학생회가 나뉘지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 학생회가 나뉘지게 된다면 한 단과대학 안에 두 개의 학생회가 공존하게 되고, 재선거로 뽑히는 제 1대 LD학부 학생회장은 사회과학전공(구 자전)과 LD전공 대표자간의 경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선배 사이의 갈등으로 LD전공 신입생은 선배와의 관계가 불편해 캠퍼스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배배사이의 갈등에 대해 구 자전학생인 노진(LD 13) 군은 “굳이 학생회를 분리해 단절된 학교생활을 하고 싶지 않는데 안 타깝다”며 “함께 공생하는 것인데 공동학생회라는 뜻을 LD전공 신입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LD전공 신입생 B는 “입학 전부터 선배와 교류가 없고 만나기도 꺼려온 상황”이라며 “학교생활을 하며 궁금한 점도 많고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다른 신입생들이 부럽다”고 밝혔다.

## ◆ LD학부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타 학과 학생도 LD학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은 않다. 처음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학생들은 LD학부의 특성이 외교인을 양성하는 정외와 비슷해 학부 신설에 크게 반발했다. 또한 정외 전임교수인 이상환 교수가 LD학부 학부장으로 소속을 변경하며 정외와 LD학부에 이중소속돼 정외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박이현(사회·정외 12) 정외 학생회장은 “정외는 이번 해 예정된 교수총원도 되지 않았다”며 “LD학부 신설은 단순히 입시결과 상생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외뿐 아니라 타과 학생들도 LD학부의 신설과 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다. 홍지은(영어·영문 12) 영어대 학생회장은 “통번역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번역대학원 1차 필기시험을 LD전공학생들에게 면제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LD학부 신입생 C는 “우리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 과임을 입는 것도 눈치 보인다”며 걱정했다.

## ◆ LD전공 신입생의 ‘혼란’

이렇듯 LD전공 신입생들은 학생사회 내에서 융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아니라 학교 측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전달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입학처는 그동안 입학홍보 시 LD학부 신입생들이 학교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 관한 세부 충족사항이 수시접수 후 공지되는 등 잘 전달되지 않아 신입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은정(LD 14) 양은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에 LD학부를 선택하게 됐지만 전액장학금과 이중전공 우선배정 혜택에 대한 성적기준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1. 4년 전액 장학금 제공(수능 국어, 영어, 수학 백분위 합 2900이상 또는 3개영역 모두 1등급)
  2. 통번역대학원이나 국제지역대학원을 진학 시 석사과정까지 장학금 제공
  3.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지원 시 졸업생에 한해 1차 필답 시험 면제
  4.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KOTRA 인턴십 우선 제공
  5. 이중전공 우선 배정
  6. 첫 학기 기숙사 우선 입사 및 기숙사비 면제
  7. LD학부 전용 면학실 제공
- \*의무사항 : 재학기간 중 국립외교원 입학시험 및 국가고사 1회 이상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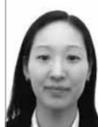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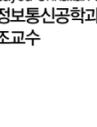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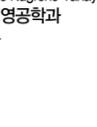
## ▲ LD학부 신입학 장학 및 특전

LD학부 신입생 혜택의 세부 충족사항은 매 학기 취득학점 14학점 이상에 평점 평균 3.5 이상을 유지해야 4년 장학금이 지급되며, 한번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시 장학금 수여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그리고 1학년 때 취득학점 34학점, 평점평균 3.8 이상 성적이 충족되는 학생들만 이중전공이 우선 배정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학교에서 3.8 이상의 성적이면 충분히 원하는 학과를 선택 가능해 조삼모사의 혜택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다.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진학 및 장학금 특전은 학부 과정에서 평점평균 4.00이상이 되어야 한다.

LD전공 신입생 안에서는 선배와의 갈등, 밖에서는 타과 학생들의 불편한 시선과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혜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계속되는 LD학부 문제에 대해 이상환 LD학부장은 “LD학부의 인프라 구축단계라 여유가 없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 2014학년도 1학기 양 배움터 신임 교원을 소개합니다

 김수연 영어학부 조교수	 곽선주 행정학과 조교수	 민희철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이종오 프랑스어교육과 부교수	 김장호 Language&Diplomacy학부 조교수	 송은석 한영과 조교수
 유정화 한노과 조교수	 안미경 외국문학연구소 조교수	 Shaun Justin Manning 영어학부 조교수	 Gert Rudi Hofmann 독일어과 교수	 Natalia Timofeevna Okatova 노어과 부교수	 Boon Young Han 스칸디나비아어과 조교수
 Tengsoe Tjahjono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교수	 Simuang Kewalin 태국어과 조교수	 Vijaya Sati 인도어과 교수	 Krzysztof Jakub Iwanek 인도어과 조교수	 Nadir Engin Uzun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Zhang Guang Mang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Wang Dong Ming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Liu Chun Rui 중국언어문화학부 조교수	 Olivier Bailble 중국언어문화학부 조교수	 Wang Yun 중국외교통상학부 부교수	 Komiya Makiko 융합일본지역학부 조교수	 Yoon Soo Kim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Helder Ferreira Do Vale 중남미학과 조교수	 정미연 수학과 조교수	 양성준 통계학과 조교수	 김태경 전자물리학과 조교수	 Chu Da Qing 중국어통번역학과 조교수	 Yang Xu Rong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Katsuragawa Tomoko 일본어통번역학과 조교수	 Mat Zaid Bin Hussein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Ratchaneeya Kinnamhom 태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Sureerat Bumrungsuk 태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Krisztina Karizs 헝가리어과 조교수	 Mila Slamenkovic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 조교수
 Idalena Oliveira Chaves 브라질학과 조교수	 Jose Carvalho Vanzelli 브라질학과 조교수	 Hadiza Auwal Ibrahim 아프리카학부 조교수	 Sayed Chhatten Shah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Bernardo Nugroho Yahay 산업경영공학과 조교수	 Mark Graham Sample 외국어교육센터 조교수
			 Ryan Richard Fitzgerald 외국어교육센터 조교수		

지구촌을 읽다-⑥

#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꽃보다 누나'에 비친 그 매력과 속살 속으로...



김창민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교수

몇 달 전 방송 '꽃보다 누나'를 통해 오랫동안 깊은 껍데에 숨겨졌던 유럽의 진주가 국내에 소개됐다. 이후 크로아티아를 향한 감동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 회자된다. 그동안 국내에선 그 매력이 잘 소개되지 못했기에 이 지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무척이나 커진 듯하다. 하지만 해당 학과 교수인 필자는 크로아티아와 두브로브니크의 진정한 매력과 그 아름다운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아 조금은 안타깝다. 여행의 뜨거운 감동을 '눈'이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 하나하나에 담긴 수 천 년의 역사에 대해 사전 인지가 이뤄져야 한다.

발칸 유럽 남단 아드리아 해안에 자리한 크리스티아 전통의 중세 도시인 두브로브니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역사적 유산이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192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는 1929년 이곳을 방문한 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만약 지상의 낙원을 보고 싶다면 두브로브니크로 오라!"("If you want to see heaven on earth, come to Dubrovnik!")고 극찬하기도 했다. 실제, 두브로브니크는 천혜의 관광지인 아드리아해안가에 접해 통상 '아드리아 해의 진주'란 별칭이 있다. 아직까지도 성내에 거주민이 생활하면서 중세 도시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두브로브니크는 1979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역사 기록을 보면 아드리아 해의 작은 돌섬에 불과했던 두브로브니크는 7세기 슬라브족의 침공을 피해 달아난 로마 시민들의 피난처로 처음 알려졌다. 도시 내 성벽 일부 등 여러 유물과 역사적 흔적에 따라, 8세기 이후로 한동안 동로마 제국의 영향 하에서 초기 문화와 도시의 발전을 진행해 갔다. 십자군 전쟁 이후 1205년부터 1358년까지 베네치아 공국의 영토 하로 편입된 두브로브니크는 이후 한 동안 헝가리의 영향력을 받았지만 중세 시절 '라구사(Ragusa) 공국'으로 불리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도시로 급성장했다. 당시

공국은 거둬들이 부를 활용해 주변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계속 추진해 15-16세기에는 베네치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해양 무역 공국(Maritime Republic)'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신대륙 발견과 새로운 항로 개발, 특히 1667년 대구모 지진으로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하고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무역 도시의 명성이 점차 쇠퇴했다. 이후,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로 부상한 두브로브니크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중세의 웅장한 건축물을 보존한 채 점차 그 명성을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붕괴 속에서 약 7개월간의 세르비아군 포위와 포격으로 도시 건물의 약 56%가 피해를 입은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후 유네스코(UNESCO)와 여러 국제 지원으로 2005년 파괴의 흔적들이 완전히 치유됐으며, 21세기 세계 최고 관광지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급부상하고 있다.

는 웅장한 성벽을 들 수 있다. 우선, 성 블라이세를 수호성인으로 하고 있는 두브로브니크 성 안에는 광장에 자리한 18세기 아름다운 이탈리아 바로크 풍의 '성 블라이세 교회'를 들 수 있으며, 오늘날 박물관이 된 1441년에 세워진 고딕-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장 관저 또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성 출입을 위한 주요 문인 '필레 게이트(Pile Gate, 고대 그리스어로 Pile는 Gate란 뜻)' 인근에 자리한 프란체스코 수도원에는 1317년 이래 운영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약국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그 약국은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1528년에 완공된 후 1667년 두브로브니크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성 세이비어 교회'와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그리고 르네상스 양식 등이 절묘하게 결합된 다양한 중세 건축물이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13~16세기에 건설됐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하늘에서 본 전경

무엇보다 두브로브니크의 매력은 중세 여러 유적물이 자연과 함께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이다. 우뚝 솟아 대리석이 깔린 광장과 중앙 도로,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 중세 수도원과 교회 외에도 잘 보존된 중세 고성의 내외부와 지중해의 쾌적한 기후 그리고 푸른 숲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만든다. 이와 함께 1949년 이래로 매년 여름 45일에 (7월 10일-8월 25일) 걸쳐 열리고 있는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에선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연주회, 다양한 연극과 오페라 그리고 크로아티아 전통 민속 무용 등이 눈부신 에메랄드빛의 자연 환경과 중세 건축물과 잘 어울리며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두브로브니크의 매력을 보다 돋보이게 한다.

두브로브니크 성 내부의 대표적인 역사 관광지로는 '성 블라이세 교회'와 여러 중세 수도원, 중세 시대의 약국 및 도시를 감싸고 있

으며 아직도 원상 그대로 보존돼 유럽 최고의 성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 길이가 2km에 달하는 성벽의 두께는 보통 4-6미터, 가장 두꺼운 곳은 거의 7m에 이르며, 높이는 25m의 16개의 탑이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필자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웅장한 두브로브니크의 성벽을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곤 한다. 성벽 밖으로는 에메랄드빛의 아드리아해, 안으로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중세 역사 속에 거주민의 흔적을 그대로 느끼며 즐기는 호사로운 그 어떤 여행의 감동보다 크다. 특히, 도시 내부 쪽 가장 높은 전망탑에서 바라보는 아드리아해와 성 내외부의 전망은 매우 아름답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느꼈을 바다의 신선한 공기와 그 감동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두브로브니크 방문 최고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 외대인이 만난 세계

### 잊지 못할 브로모 화산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 해 2학기에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7+1 파견학생으로 공부하던 중 '브로모 화산'에 다녀온 적이 있다. 브로모 화산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에 있는 활화산이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의 공항에 도착해 차를 타고 브로모 화산으로 이동했다. 산 중턱에 마련된 숙소에서 일출시간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했다. 숙소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라 밤공기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고 공기가 좋지 않은 자카르타에서 브로모 화산으로 오니 같은 인도네시아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일출 시간이 다가오자 전망대로 이동했다. 브로모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해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날은 날이 흐리고 비가 와 일출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해가 뜨고 날이 개자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때의 감동을 사진에 모두 담을 수가 없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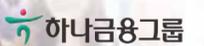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브로모 화산 외에도 129개의 활화산이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자바 섬에만 30개가 넘는 정도다. 위험해 보이는 활화산이지만 인도네시아의 대표화산인 '머라빠' 주변에는 마을이 있다. 화산이 주는 혜택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다. 매력적인 관광지인 화산에 수많은 여행객이 찾아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브로모 화산 밑에 거주하는 '멩게르족'의 생업도 주로 관광업이다. 2011년 브로모 화산이 소규모 폭발했을 때 관광객이 급증했다. 덕분에 화산 주변의 관광업체는 때 아닌 특수를 누렸다. 이처럼 화산은 때로 재앙을 안겨주지만 인도네시아인의 생업과도 밀접하다.

끝으로 멩게르족과 관련된 재밌는 전설을 소개하고 싶다. 옛날에 '조코 세게르'라는 왕과 '로로 안땡'이라는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둘은 신에게 간곡한 기도를 올렸다. 이에 감동한 신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조건은 바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해줄 테니 그 중 막내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왕과 왕비는 조건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많은 자식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막내아들인 '계슈마'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했다. 왕과 왕비는 자일피일 약속을 미뤘고 이에 분노한 신은 온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알게 된 계슈마는 결국 스스로 분화구에 뛰어어들었다. 이에 신은 노여움을 풀고 그 표시로 분화구를 통해 거대한 구름을 분출했다고 한다.

멩게르족의 명칭은 왕비 이름의 끝음절 '땡'을 가져오고 왕 이름의 끝음절 '게르'를 합성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때부터 멩게르 족은 마지막 달 보름에 쌀과 과일, 야채, 꽃, 가축 등을 브로모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행한다. 그래서인지 분화구 주변에는 '에텔바이스 꽃'을 분화구에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며 꽃을 파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예승 (동양어·만어 10)

## KEB 외환은행



# 해외여행도, 해외진출도 외환은행만 믿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국내 최대 55개 해외 네트워크는 물론 맞춤형 환율, 환리스크 관리까지  
외환은행과 함께 당신의 세계를 더욱 넓혀주세요.



## 당신의 세계를 넓히다 외환은행

# 꽃피는 봄은 성큼 다가왔지만 차갑기만 한 노동자들의 현실

## ◆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 알고 계십니까?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3일 고려대학교 광장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총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해 '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 파업'이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번 해는 3월 초부터 시작된 '대학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파업'이 학내 의제로 급부상했다. 철도노조 파업처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이번 파업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강성노조'나 '귀족노조'가 아니다.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등 14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다. 우리사회 내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연대노력은 16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3일 고려대학교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대회'에서 서경지부 소속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했다.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은 '노동인권 기본 생활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파업은 지난 달 5일 시급 인상을 협상하기 위한 집단교섭이 결렬되며 촉발됐다.

3일 총파업 이후에도 고려대학교는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갔고 잇따라 경희대학교도 5일 전체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실시했다. 이들 학교의 미화·경비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생활 임금화와 더불어 학교 당국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 ◆우리학교의 노동현실은?

최근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학교는 인접학교와 달리 평소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대학의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적절한 노동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학교 미화노동자들은 대체로 오전 5시 40분경 출근해 각자 맡은 건물 구역 청소를 준비한다. 오전 6시가 되면 대부분의 미화원은 학교 곳곳에서 지정된 구역을 청소한다. 오전 6시부터 8시 30분 정도까지 밤새 쓰레기통과 강의실, 복도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거나 지저분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한다.

여러 건물 중 특히 국제학사 건물의 청소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힘들기로 악명 높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과방과 동아리방이 몰려있어 쓰레기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숙사까지 치워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다. 화장실 청소도 학생들이 매우 지저분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화원들의 어려움이 많다.

## (※취재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미화원 A 씨** = "화장실 바닥에 가래침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바닥에 토를 해놓고 가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다. 변기에 휴지나 담배꽂이를 버려 변기를 막히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 화장실을 치우다 보면 구역질이 올라올 때가 많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미화 활동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는 9시 전에 끝나야 한다. 오전 9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며 미처 하지 못한 아침식사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고정적이지 않다.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저를 내려놓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미화 노동자들에게 '아침 겸 점심'은 익숙하다.

**미화원 B 씨** = "사실 출근 시간은 다양해 오전 5시 전부터 나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식사는 근무 도중 여유가 있을 때 하는데,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맡은 일을 하러 가야 한다"

이렇게 오전을 보낸 미화원들은 휴식을 취하다 오후 1시쯤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다. 오전과 비슷하게 학교 건물 내부와 외부의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정리한다. 이후 미화원의 퇴근 시간은 오후 5시로 동일하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의 환경미화를 위해 일하는 미화원들의 휴게장소는 각 건물의 관리실 내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 관리실 공간을 쪼개 만든 휴게공간이다. 크기는 겨우 몸을 누울 만큼이

지만 그곳에서 식사까지 해결해야한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미화원들에 비해 각 건물마다 다양했다. 4명의 경비원이 돌아가며 숙직 근무를 서거나 2인 1조로 구성된 2개조가 2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섰다.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근무만 서는 경비원도 있다.

**경비원 A 씨** = "야간 근무의 경우 저녁이 되면 경비실에 난방이 되지 않아 춥다. 특히 주말에는 24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이때도 안 나오니까 겨울에는 하루 종일 춥다."

야간 근무자는 혼자서 저녁 11시가 되기 전에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정리정돈까지 마쳐야 한다. 경비원은 교내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면 이리저리 불려 다니며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행사 진행 장소의 일손을 돕기 위해 다른 건물에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

**경비원 B 씨** = "학생들이 늦게까지 교실을 쓰는 경우 숙직 근무자 한 명에서 학생들을 내보내고 책상을 일일이 정리해야 해 힘들다. 가끔 11시가 다 돼서 강의실에 남아있는 학생에게 교실을 비워달라고 하면 되려 '내가 학비 내고 쓰는데 왜 뭐라 그러냐고 큰소리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자식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다."

**경비원 C 씨** = "학교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불려나가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한다. 일 더한다고 수당이 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



▲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아침부터 학교에 나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 ◆우리학교의 불편한 진실

살펴본 결과 우리학교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고용형태는 학교에 의한 직접 고용이 아닌 (주)동원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간접고용이다. 이에 용역업체 실무진은 인사권을 통해 미화·경비 노동자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경비원 A 씨** = "학교 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고됐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구실로 실무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원은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미화원 B 씨** = "용역업체 실무진이 자꾸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 일이 힘든 건물로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게다가 다른 학교와 노동 강도는 비슷하면서 임금수준은 현저히 낮았다. 현재 우리 학교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100만 원에서 105만 원정도이다. 이마저도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95만 원 남짓이 손에 쥐여진다. 우리학교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생계 임금수준은 커녕 최저임금에 겨우 부합하는 수준이다. 경희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대학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생계 임금수준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해 성북구와 노원구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해 결정된 생계 임금은 135만 7천 원, 이번 해는 143만 2천 원이다. 생계 임금수준 결정은 5인 이상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인 8%를 합하는 방식이다.

조건	
● 이번 달 기준, 주 5일 근무가정할 시 총 근무 일수는 21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	
- 2014년 최저시급 = 5,210원	
- 조건에 따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 1,094,100(5,210×10시간×21일)원	
- 2014년 생계임금 = 1,432,000원	
- 우리학교 노동자 임금 약 1,000,000원	
※ 단순한 계산일 뿐 초과근무에 따른 시급인상과 같은 세부사항은 고려하지 않았음.	

## ◆다른 대학의 파업 타결

앞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미화·경비 노동자는 최근 용역업체 측과 임금 인상을 합의해 기존 시급 6700원에서 500원 인상된 시급 7200원을 받게 됐다. 공공운수노조 홍은숙(여, 63) 서경지부 고려대학교 분회장은 "임금 인상을 타결해 낸 데에는 노조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자유로운 병가사용도 보장받는다. 홍은숙 분회장은 "다치거나 아플 때 병가를 내는데 노조가 없었다면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하는 환자의 경우 학교에서 해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외에도 고려대학교의 모든 노동자는 주 5일 근무와 7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그대로 고용이 보장된다.

#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백영란(여, 58) 경희대학교 분회장은 이번 임금 인상안 타결에 대해 "노조의 힘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이번 협상타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청소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지지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파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왜 파업을 하는지' '노조의 요구안은 무엇인지' 등을 학생들과 공유했다. 백영란 분회장은 "학내 노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노조 활동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조 1년차 한예중의 기본 좋은 변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장 1절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다. 권태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그럼에도 대부분 미화·경비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즉 용역업체에 고용돼 학교에서 하청업체를 교체해버리면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도 노조가 생기면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가 한예중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3일자 '한겨레 21'에는 '노동조합이 한예중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한예중은 노동조합이 생긴지 1년 정도밖에 안된 곳이다. 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긴 후 청소노동자들에게 생긴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가 생기기 전 청소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부당노동행위에...(중략)...청소노동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노조를 만들고 학교와 용역회사에 임금단체협상(이하 집단협)을 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어렵게 집단협이 체결된 뒤...(중략)...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시간당 임금이 452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됐다. 별관에는 없던 휴게실도 생기고 기존에 있던 휴게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설치됐다. 연차가 있어도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여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날에 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제991호 한겨레21에서 발췌)

홍은숙 고려대 분회장은 한예중의 예를 들며 "노조는 시작하기가 가장 힘들지만 일단 설립되고 나면 노동자의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보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생활임금 :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

# 우리학교 60주년 “양 배움터 주요 동아리 탐방”

## 물살을 가르는 군단, 외대 조정부



▲ 1993년 당시 조정부원끼리 조정을 하는 모습이다.

우리학교 조정부는 1964년도 동경올림픽에서 서울배움터 최신희(독일어 61)씨가 조정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정은 마라톤과 더불어 가장 힘든 운동으로써,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는 엄청난 훈련량이 수반된다. 조정은 배 위에서 9명 혹은 4명의 인원이 노를 젓는 속도나, 상대의 호흡속도 등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팀워크를 보여야만 배가 물살을 가르고 전진한다. 국내 대학 중, 조정부를 가진 대학들은 많지만 전통 있는 역사와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대학은 우리학교와 더불어 전국에서 4곳(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뿐이다. 그 만큼 특수성을 자랑하는 우리학교 조정부는 1년에 총 3~4회의 대회에 출전한다. 출전 대회 중, 가장 큰 대회는 대한조정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학조정대회”로 각 대학의 조정부가 참여하여 경기를 한다.

조정부 회장 위수범(동양어·아랍어 10)군은 “조정 대회에 처음 출전하였을 때 5주 동안 연습했던 기억과 노력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박한 기쁨과 완주했다는 성취감에 울음을 터트렸다”며 “조정부에 들어온 것이 인생 최대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 조정부 대회 1위 수상경력

- 1971년 춘계 경주에이트 대회 1위
- 2011년 4개대학 조정대회 여자 포어팀 1위
- 2011년 부산시장배 조정대회 남자 포어팀 1위
- 2012년 부산시장배 조정대회 남자 포어팀 1위
- 2012년 부산시장배 조정대회 여자 포어팀 1위
- 2013년 부산시장배 조정대회 남자 포어팀 1위

## 산과 함께 동반하는 인생길, 산악부



▲ 2004년 우리학교 산악부에서는 학교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카니발루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다.

우리학교 산악부는 1964년 한성환(정치외교학과 64) 선배의 주축으로 창설된 대학생 산악 등반 동아리로, 국내·외 산을 배경으로 심신을 연마하며 등산하는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동아리다. 등산 이외에도 자연 압박과 인공 압박을 오르며 체력증진과 정신 수양을 병행한다.

세계 여러 산들을 등반한 엄홍길(동양어대·중국어 02)대장 역시 이곳 출신이다. 2004년 산악부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한국외대 알통강 원정대’란 이름으로 해발 8505M의 알통강을 엄홍길 대장과 함께 정상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엄홍길 대장 외에도 1977년 김병준(무역학과) 씨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원정대 대원 중 한 분이기도 하며 1986년 K2 원정대 대장으로서 파키스탄 내 산을 등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이창희(경영·경영 08) 산악부 회장은 “산악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복정신을 몸소 느꼈다”며 “한계는 자기 스스로가 정하는 것으로 인생에 모든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 산악부는 우리학교 개교 60주년 및 산악부 탄생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히말라야

7000M 원정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달 26일 교수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원정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 산악회 주용 활동 내역

- 1977년 네팔 에베레스트 :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원정대 중 한 명(김병준)
- 1984년 네팔 바루체히말라야 : 국내 최초의 “등로주위”등반성공
- 1986년 파키스탄 K2 원정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통령상 수상
- 1988년 일본 북알프스 산맥 : 최초의 재학생 원정
- 2004년 네팔 알통강 : 엄홍길 대장 외 한국외대 산악부 등반

## 국내 유일한 UN 모의 총회, 하이문(HIMUN)



▲ 2003년 HIMUN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이문(HIMUN)은 1958년 정치외교학과 학회에서 시작해 자치기구학회로 인정받아 설립됐다. 실제 UN총회를 바탕으로 구성된 모의유엔총회 단체이며 국내 최초로 진행된 외국어 학술 행사이다.

전국에 있는 다른 UN모의총회와는 다르게 실제 각 6개국(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의 대표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발언하며, UN공식 언어가 한국어로 통역까지 되는 국내 유일한 모의UN총회 단체다.

하이문(HIMUN)은 1년에 1번 매해 타 대학과 다양한 단체 및 정부 부처 기관 협력 하에 정해진 의제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그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해 뜻 깊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또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이슈에 대한 학생과 일반인들의 관심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한다. 또 모의총회 의제에 대한 홍보 및 UN회의에 대한 홍보와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 최근 6년간 HIMUN 주요 의제

- 2013년 제37차 “세계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 2012년 제36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모색”
- 2011년 제35차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노력”
- 2010년 제34차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 협력”
- 2009년 제33차 “대체에너지 보급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역할분담”
- 2008년 제32차 기후변화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역할분담”

## 노래에, 노래에 의한, 노래를 위한 자들의 모임 - 아웃사이더



▲ 우리학교 아웃사이더 동아리가 홍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중앙밴드동아리 아웃사이더는 1984년도 초대 지도 교수였던 김윤진 교수에 의해 창간됐다. 당시 김윤진 교수는 자신의 롤 모델인 ‘퀸’이란 밴드의 영향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동아리’가 ‘서클’로 불려 ‘양산 서클 연합회’란 이름으로 동아리 인준을 시작해 현재의 아웃사이더가 됐다.

아웃사이더는 매해 동아리 박람회, 양산 록페스티벌, 양산 밴드 연합공연, 홍대에서의 정기공연을 통해 밴드 동아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웃사이더 출신의 유명한 선배들은 다른 대학들과 연합해 동아리를 만들어 정기공연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 현재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텔리 스파이스’와 ‘엘로우 몬스터’가 있다. ‘텔리 스파이스’에서 베이스를 담당하는 윤준호씨와 ‘엘로우 몬스터’에서 드럼을 담당하는 최재혁 씨는 아웃사이더 출신이다. ‘텔리 스파이스’의 대표곡은 영화 ‘클래식’의 OST인 ‘고백’과 ‘차우차우’가 있으며, “엘로우 몬스터즈”는 록을 연주하는 밴드로 ‘2014년 제 1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상’을 수상하였으며 ‘유희열의 스케치북’, ‘공감’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다. 특히 아웃사이더 1기인 이승환 씨는 현재 우리나라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 매해 진행되는 활동내역

- 2월 - OT 중앙무대 공연 및 경시대 공연 - 총 6곡
- 5월 - 아웃사이더 야외공연, FBS 축하공연, 양산 락 페스티벌 참가 - 총 15곡
- 8월 - 외대 창의 인성캠프 초청 공연 - 총 6곡
- 11월 - 양산 밴드 연합공연 - 총 4곡
- 11월 - 30주년 정기공연 - 총 30여곡

## 우리학교 핫 링크, 통번역연합회



▲ 통번역연합회 구성원들이 홈커밍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1993년 봄,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몇 학생들이 술을 마시며 시작된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타 대학이 아닌 우리학교 학생으로서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을 습득해 실전에서 나가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동아리는 작은 단체에 불과한 점으로 미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연합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수렴해 설립된 것이 바로 통번역연합회이다. 설립 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학교 자치기구로서 인정 받았으며 1993년 3월 드디어 통번역연합회가 발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번역연합회는 연합회 자체의 기초를 다지고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공식적으로 1993년 8월 ‘국제 핸드볼 경기대회’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통역을 맡게 되면서 통번역연합회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

통번역연합회는 통역의 현장에 뛰어들어 해외의 수입상과 우리나라 판매자를 대상으로 통역을 해 주면서 무역의 영역 중에 하나인 영업을 현장에서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경업을 하면서도 국내만이 아닌 해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업에 국제 마케팅부서, 해외 영업부서 등이 생겨남에 따라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게 됐다. 통번역연합회는 1년에 2~5회 정도 전시회 통역을 나가며 자원봉사로 나가는 통역이 아닌 하나의 통역사로 돈을 받고 통역을 해 주는 업무를 한다.

특히 번역 업무는 간단한 것이 아닌 수입 기계의 매뉴얼을 번역하거나 수출, 특히, 수출입 관련 번역 또는 방송영상 번역을 하면서 전문 번역사를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데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통번역연합회 활동내역

- 삼성 코엑스, 일산킨텍스에서 1년에 최소 2번 정도 전시회 통역을 함.
- 1년에 다수 이상의 영상번역/최근에는 CJ E&M 과 youtube 영상번역
- (주)엘로우페이지와 뉴스 기사 번역 외 각종 기사 번역
- 기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번역(해외 물품 매뉴얼, 수출, 특허, 수·출입 관련 번역) 등

# 개방에서 폐쇄로... 변화하는 SNS 이용행태

## 당신의 SNS는 무엇입니까

지난 해 까지만 해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페이스북 삼매경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의 소식도, 자신의 소식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 인기는 사그라진 듯하다. 페이스북이 외면 받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피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과 광고로 즐비하다. 주변에서도 하나 둘씩 페이스북을 그만두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들의 페이스북 사용법이 변화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형 SNS에서 특정 인원만을 위한 폐쇄형 SNS로 바뀌고 있다.

### ◆ 심해지는 사생활 침해

지난 해 10월 대학내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SNS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10명 중 7명이 SNS를 그만두려고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사생활 노출(31%)'과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30%)'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름과 학교 정보만으로도 페이스북 사용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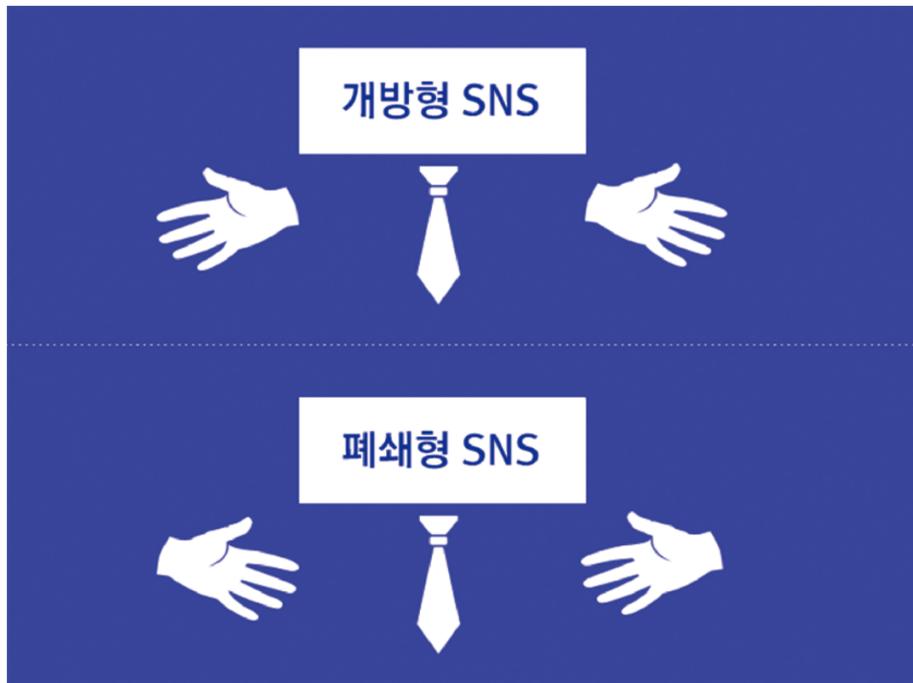
지난 10~13일 4일 동안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총 응답자수 789명) 페이스북 사용빈도가 처음 이용할 때보다 낮아졌다고 76%(462명)가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낭비'가 36%(242명)로 1위, '사생활 노출'이 22%(146명)로 2위를 차지했다. 사생활 침해는 페이스북이 생겨나던 시점부터 대두된 후유증이다. 자신의 정보를 더 이상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이들이 점점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 ◆ 절만 사는 친구들... 나는?

"친구들은 페이스북에 방학 때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노는 사진들을 올리는데 아르바이트와 스펙 만들기엔 치여서 사는 저를 볼 때면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해 졸업을 유예한 김○○(서울, 24)은 최근 페이스북을 그만 두었다. 페이스북에 자랑하듯 게시된 친구들의 생활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내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도 페이스북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그것 또한 필요가 없어졌다.

개방형 SNS 이용자는 본인의 게시물이 남들에게 모두 보여지기에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타인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과장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좋아요' 수와 댓글에 민감해지고 이것들에 초조해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다가 그만 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소외감'은 13%(74명)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개방형 SNS와는 달리 폐쇄형 SNS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 무분별한 광고와 음란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볼 수 없나요?

요즘 페이스북을 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광고다. 더 높은 '좋아요' 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일 또한 심심치 않게 보인다. 최근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면 '필터링'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지게 된다. 박진현(경상·경제 12) 양은 "예전에는 친구들 소식을 보러 페이스북에 자주 접속하곤 했는데 요즘엔 이상한 게시물이 너무 많다"며 친구들도 예전에 비해 소식을 많이 올리지 않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은 우리를 점점 페이스북에서 멀어지게 한다.

### ◆ 새롭게 부상하는 폐쇄형 SNS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방형 SNS로 분류된 페이스북의 한국인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가 SNS 이용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입자 수가 아닌 '활용도' 기준의 SNS 이용행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가입자 수는 의미가 없고 그것을

된다. 요즘 심심치 않게 '페이스북 피로'나 '페이스북 스트레스'니 하는 표현들을 쓴다. SNS가 없었던 공이 알 필요도 없었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담벼락에 올리는 수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다면 피곤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에서는 친하지 않아도 예의상 친구를 맺고 친수 수에만 집착하게 하는 아주 독특한 SNS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수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소통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Q. 개방형 SNS에서 폐쇄형 SNS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와 폐쇄형 SNS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 폐쇄형 SNS가 부상하고 있기는 하다. 그건 어찌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SNS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형태의 SNS의 용도가 조금 다른 것도 한 원인일 것 같다. 요즘 부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SNS는 새로운 가상 인맥을 만든다기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이미 형성된 인맥을 '강화'하는 서비스에 가깝다. 이처럼 지인 기반 SNS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깊이 있는 인맥 형성에 유리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Q. 앞으로의 SNS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밴드 같은 폐쇄형 SNS가 주로 개인적인 소통에 편리한 서비스라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상대적으로 개방형 SNS는 정보 공유, 혹은 정보 습득의 측면에서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다. 이런 개방형 SNS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보면 주로 개방형 SNS에는 공개해도 무방할 만큼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반면, 폐쇄형 SNS에서는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것 같다.

또한 폐쇄형 SNS가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페이스북의 이용률은 훨씬 높다. 한 SNS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성격의 SNS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SNS가 등장하겠지만 당분간은 이 두 가지 성격의 SNS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근 2년여 동안 우리나라 SNS 소통을 주도했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안정기를 넘어 퇴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에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를 비롯해 라인, 밴드, 데이비 등의 가입자 수는 증가하며 사람들의 SNS 이용 행태가 폐쇄형 SNS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밴드'의 경우 불과 2년 만에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폐쇄형 SNS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가까운 지인들과의 교류'가 48%(172명)로 1위를 차지했고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대답을 25%(92명)가 응답해 2위로 꼽았다.

### ◆ 앞으로의 SNS 전망은?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화하는 SNS 사용 행태에 대해 우리학교 진민정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Q. 한창 유행하던 개방형 SNS인 페이스북을 그만두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가장 큰 원인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온라인 관계 형성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으로 분석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운동흥

임수진 기자

### 누구를 위한 연맹?

박태환과 대한수영연맹이 다시 한 번 뉴스거리가 됐다. 박태환이 연맹의 눈에 밟여 런던 올림픽의 포상금을 1년 6개월이나 늦게 받았다는 것이다. 연맹은 '예산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1월 대한수영연맹이 발표한 2014년 국가대표 명단에 박태환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박태환은 긴 공백기간에도 지난 해 전국체전에서 4관왕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맹은 이전까지는 문제로 삼지 않던 개인 훈련을 트집 잡으며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렸다. 결국 박태환은 지난 달이 돼서야 국가대표 명단에 다시 포함됐다.

최근 스포츠 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전 종목에 걸쳐 끊이지 않았다. 대한빙상연맹은 소치 올림픽 내내 빅토르 안의 러시아 귀화를 둘러싼 연맹 내 파벌 문제와 김연아에 대한 편파 판정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1월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적 과실로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대표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이 선수 자격을 정지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해에도 대한역도연맹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연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빈축을 샀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가 뒤늦게 철회한 장미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명 당시 탄원서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명단에 연맹 임원들의 이름이 있어 연맹을 위해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협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이지 못한 행정 운영 때문이다. 협회의 존재 이유에는 '우수한 선수 양성을 통한 국위선양'이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협회들의 대다수는 선수를 위한 행정보다 연맹 그 자체, 혹은 연맹 내 임원을 위한 행정에 더 힘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쯤에서 스포츠 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대학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최근 모 대학에서는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수 2명에게 또 한 번 강의를 개설해줬다가 뒤늦게 무기한 정직조치를 내렸다. 학교의 목적은 학생이 가진 능력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고 학교의 주인은 재단도, 총장도, 교수도 아닌 학생이 돼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 사회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 어깨너머 듣는 교양

장주혜(교양학부, 음악의 이해와 감상 과목 외래교수)

### 아름다움의 가치

현대사회는 모든 가치(價値)를 돈으로 환산한다. 물건을 살 때도, 직업을 고를 때도,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당해 목숨을 잃었을 때도 돈으로 그 인생을 계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얼마나 당연한 계산법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의 쟁점에 밀려 많은 것들을 외면하며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

수십여년 음악을 하며 살아온 내 인생도 그 가치 앞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빛의 밝기를 룩스(lux) 단위로 헤아린 조사를 읽은 적이 있다. "4위가 사랑할 때, 3위가 기쁠 때, 2위가 편안할 때, 1위가 깨달을 때"라는 글을 읽으며, 원초적인 인간 내면의 행복감은 '돈의 가치'로 절대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안도감을 느꼈었다.

인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아름다움의 가치'를 잘 관리할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 수 있는 마음이, 성인군자들처럼 "남들이 뭐라 하든나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불만족스런 현실을 벗어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이상황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기와의 타협점과 해답을 찾되... 그 현명(?)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나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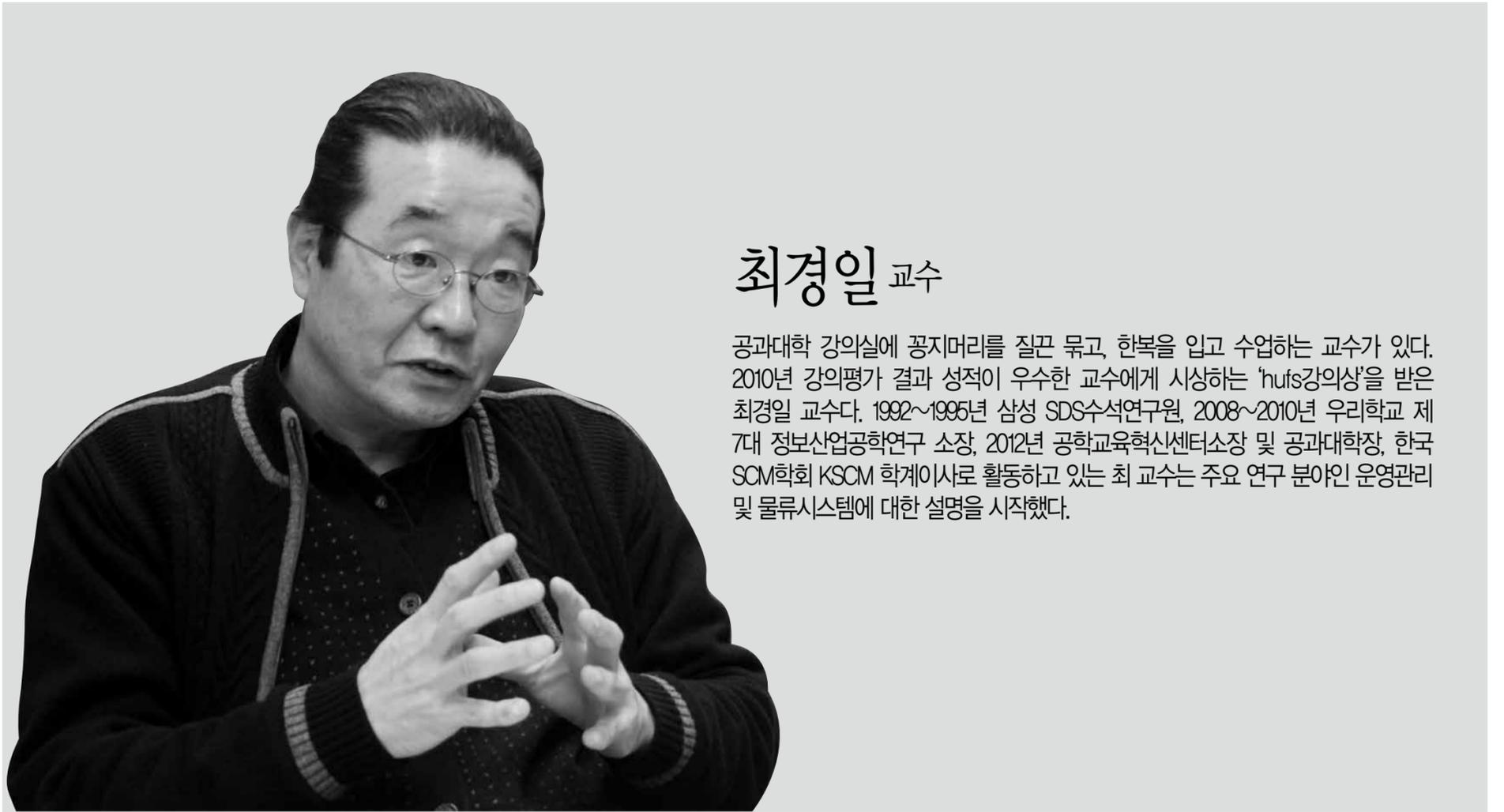
어바로 이순간을 또 숨 쉴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 우리는 '물질적 돈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신적 위로의 가치'를 매일매일 필요로 한다. 정해진 메트로놈 템포 같은 삶의 박자에서 벗어나 한 박자 늦게 가고, 한 번 더 심호흡을 할 수만 있다면 일상의 삶들은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저 따끈 따끈한 커피 한 잔, 여백을 주는 그림 한 점, 그리고 모차르트의 투명한 선율 하나를 찾을 아주 작은 여유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만 드신 '자연과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예술'에서, 즉 '아름다움의 대상'을 찾는 일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일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파른 호흡을 정리하고 나 자신의 내면을 정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매순간이 불안정하다. 그러나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 줄 것이다.

봄이 있는 외대의 교정에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문득 '감사함'이 돌아온다. 살아있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어 슬픔을 느끼고, 살아있어 괴로움을 겪지만, 비록 지금 이 순간만은 살아있어서 이 음악을 '아름다움'으로 전달받기에...



## 최경일 교수

공과대학 강의실에 공지머리를 질끈 묶고, 한복을 입고 수업하는 교수가 있다. 2010년 강의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시상하는 'hufs강의상'을 받은 최경일 교수다. 1992~1995년 삼성 SDS수석연구원, 2008~2010년 우리학교 제 7대 정보산업공학연구 소장, 2012년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및 공과대학장, 한국 SCM학회 KSCM 학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 교수는 주요 연구 분야인 운영관리 및 물류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 산업경영공학, 공학의 중심에서 효율을 말한다.

“공대에 경영학과가 있다고? 산업경영공학?”  
우리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산업경영공학과를 본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인 하지만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은 엄연한 공학이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토목이나 건축공학, 화학공학은 기계, 전자, 교량, 건축물, 화학물질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루나 산업공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을 공학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산업공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하고 관리해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다른 공학 분야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복잡한 시스템의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학도를 양성한다. 그 세부적인 학문분야도 기술경영, 품질공학, 인간공학 등 다양하지만 그 중 최 교수의 주 분야인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로지스틱스(Logistics systems)에 대해 들어봤다.

###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공급망관리(SCM)는 대기업의 경쟁력”

IT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강력한 ERP와 SCM 체계에 기반한 치밀한 시장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 계획 경영 체제가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운영 업무와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 요청,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ERP는 필수”라며 “만일 중요한 정보가 각기 다른 시스템이나 장소에 위치한다면 업무 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강조하는 ERP와 SCM은 뭘까. 먼저 ERP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과정과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IT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빠른 정보 습득과 생산 및 구매, 고객층의 확대에 따른 복잡해진 공급망 때문에 내부 자원의 관리만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급망에 존재하는 제조, 판매, 구매 등 모든 경영기능 간의 협업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SCM 통합 전략을 세운다.

이에 나타난 SCM은 물자, 정보 및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동하는 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SCM에는 기업내부와 기업간 사이에서 이런 흐름의 조정과 통합 과정이 수반된다. SCM은 제품·정보·재정 흐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품 흐름은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의 상품 이동은 물론, 어떤 고객의 물품 반환이나 애프터서비스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으로 정보 흐름은 주문의 전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을 말하며 재정 흐름은 신용조건, 지불계획, 위탁판매, 그리고 권리 소유권 합의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SCM 애플리케이션은 확장된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 내·외에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둔다. 여기에는 주요 공급자, 생산자, 그리고 특정 회사의 최종 고객 등이 포함된다. 이 공유 데이터들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그리고 서로 다른 사이트나 회사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를 회사의 공급자 및 고객과 함께 공유해

SCM 애플리케이션은 적시에 상품을 공급, 비용 절감 등의 측면을 개선시키기 위한 능력을 잠재한다.

이에 최 교수는 택배 배송추적을 예로 들었다. A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의 주문번호를 입력하면 택배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A홈쇼핑은 판매업체일 뿐이므로 물건위치를 알 수 없는데 소비자가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유는 택배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택배회사에서 위치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SCM이 생기면서 이제 기업들은 많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상생’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보다는 전통적인 시장경쟁 관계에 놓여 무한 경쟁을 펼쳤지만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SCM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며 “도요타가 같은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협업을 제의하며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공급망관리의 일부 ‘로지스틱스(Logistics)’

물류 상위 개념인 로지스틱스는 공급망 관리의 일부로 최근에는 ‘물자, 서비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고,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이동·저장하기 위해 계획, 이식, 통제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물류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기능 등 주로 기능에 중점을 둔 판매물류 중심인데 비해 로지스틱스는 조달·사내·생산·판매 물류와 반품회수물류 및 폐기물 물류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넓은 범위를 말한다. 최 교수는 “로지스틱스는 물류의 현대화에 따른 핵심적 개념용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이동 및 수송기능이라 할 수 있다”며 “가장 원

시적인 형태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 카트를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지스틱스는 비용과 편익에서 조달, 생산, 판매, 물류를 포함한 전체최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는 책을 판매할 때 인건비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책을 찾기 위해 디지털피킹시스템(Digital Picking System, DPS)을 사용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DPS란 선반의 책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피커(picker)가 지나가면 책 앞에 불이 빛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의 주 연구 분야인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와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차를 수리하는데 누구는 엔진 고장이고 누구는 부품오류라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시스템을 통합해주는 업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 교수는 “자동차 네비게이션의 최단경로와 관련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며 연구 논문 한편을 내밀었다. 처음 최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본 “프로는 주어진 과제의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란 글이 떠오른다. 앞으로도 그의 연구로 산업공학의 발전의 있기를 기대한다.

최소영 기자 87artis@hufs.ac.kr

### 〈최경일 교수의 주요저서 및 논문〉

- 물류관리의 종합적 이해, 형설출판사, 1998
- The most preferred route of the car navigation system : A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Trans Tech Publications, 2013
- An Ant Colony Optimization Heuristic for a Postal Collection Problem = 우편물수집문제를 위한 개미집단 최적화 휴리스틱 한국SCM학회지, Vol.10 No.1, [KCI등재], 2010
- A Graph Optimization Algorithm for Optimal Routing in an Aisle-Based Order Picking System = 복도형 오더피킹시스템의 최적경로를 위한 그래프 최적화 알고리즘 한국SCM학회지, Vol.9 No.2, [KCI등재], 2009
- Ant Colony Optimization Heuristic and Graph Optimization Algorithm of an Aisle-Based Order Picking System = 복도형 오더피킹시스템의 개미집단 최적화 휴리스틱과 그래프 최적화 알고리즘 한국SCM학회지, Vol.11 No.2, [KCI등재], 2011
- 객체지향형 우편물류 운송관리 시스템 학술대회 논문집, Vol. - No.2(1), 2002
-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모형 개발 = Integrated Platform for Korea Post Information System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 No.1(2), 2002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김다정 기자

## 의문에서 확신으로 가는 길



친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예전에는 흘려들었던 이야기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무엇이 바뀌었나 살펴보기도 하고 갈 이유가 없었던 다른 단과대학을 찾아다니는 뿐 아니라 학내 소식에 대해 빠삭해졌다. 지난 날 수업을 마치면 짹짹 귀가하던 나는 이제 본지 기자가 돼 기사거리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사실 지난 개강 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다. 밤을 새며 마감하는 동기들과 선배들을 보며 '다음 주부터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가 없었기에 아쉬움도 있었다. 결국 필자에게는 이번 호가 첫 제작이라 할 수 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꽤 오래 전부터 기자가 꿈이었다. 정보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그것들을 알리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외대학보 수습기자에 지원했던 것은 '확인'을 하고 싶었다. 내가 정말 기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든 것이다. '내가 해놓은 건 기자와 관련된 일들 밖에 없는데 이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덜컥 무서워졌다. 3학년이 된 지금,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으로 현재 외대학보에서 그의 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지난 해 2학기 수습기간을 거친 뒤 이번 학기에 정기자가 됐다. 수습기간동안 방종교육을 경험하며 필자는 변화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얻는 정보의 참맛은 그동안 검색으로만 배운 것들이 정말 곁잡기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줬다.

필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나와는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기자를 꿈꿨는지 모른다. 하지만 학보사 일을 하면서 현실을 만나기 시작했다. 취재원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닌 내가 먼저 다가야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다. '내가 말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질문을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끊임 없이 들었다. 이번 호를 위한 취재원들과의 만남은 내 의문에 대한 확인의 시작이었다.

생각보다 '확인'은 간단했다.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고 3 때도 나는 밤을 새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의지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호를 제작하며 지새운 밤은 몸은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자는 의지로 가득 차있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변한 내 학교생활은 이미 나에게 '확인'을 넘어 '확신'이라는 답을 줬는지도 모른다.



## 휴스토어(HUFStore)

외대학보와 함께 하는 중고장터, 휴스토어(HUFStore)

- HUFStore에서는 본교 재학생(외국인 교환학생 포함), 교수,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외대 구성원들의 중고물품 판매, 구매, 교환, 무료나눔 광고를 받습니다.
- 외대학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86leg@hufs.ac.kr로 보내주세요.
- 매호 대략 10개 이내의 광고가 외대학보 지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At HUFStore we accept advertisements for buying, selling, exchanging, and sharing of every kinds of second-hand goods or items from all HUFsans including students, foreign exchange students, staffs and professors.
- Please download and fill out the form on our Website and send it to 86leg@hufs.ac.kr
- Around 10 applications will be advertised at each issue in our newspaper, HUFStore corner.
- 외대학보(Oedaehagbo) does not hold any legal responsibility in the transaction. Each trading party is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s.

### 예시 Example

전공서적 구합니다. (BUYING BOOKS OF MAJOR)  
재무관리(강효석, 형설출판사) / 010-1234-5678

mp3 판매합니다. (MP3 FOR SALE)  
Apple iPod shuffle / 30,000원 / lee123@hufs.ac.kr

### 일시 정지

## 놀 권리가 있던 놀이터가 그림다



초등학생인 사촌동생이 물었다.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는데 친구들이랑 어떻게 만났어?" 그냥 친구의 집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초인종을 눌러 친구를 부르거나 집 앞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친구와 연락하기는 쉬워졌지만 요즘엔 진짜 '놀이터'가 없어지는 느낌이다. 가끔은 편리해진 요즘보다 불편했지만 회상했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때가 그림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지나호를 말하다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권대웅(사회·미디어 07)

## 외대학보의 본연의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아야

외대학보의 기초는 '자유언론 정론직필'이다. 정론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주장을 뜻한다. 직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겠다는 언론 사상을 표현한다. 본지는 대학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파수꾼, 학내구성원의 여론을 수렴·중재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호 총 기사는 33개며 스트레이트 기사는 45%(15건)다. 학사와 학교 정보가 13건으로 정보전달에 치중했다. 해설기사가 18%(6건)로 뒤를 이었다. 정보 전달도 좋지만 사안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사의 비중이 적었다. 구체적으로, 역사록 편찬에 대한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쟁점을 심도 있게 짚진 못했다.

'휴산(Hufsan)의 권리 죽다'라는 제목은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 갈등을 부추기고 사건의 본질을 흐린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잘 작동하 기관 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현재 등록금이 왜 이 정도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지난 호에서 인용된 취재원을 살펴보면 총 53명이며 기사당 평균 약 1.6명의 취재원을 활용했다. 그 중 실명취재원 90%(48명)이다. 2개 기사에서 취재한 일반 재학생을 제외하면 실명취재원은 총학생회 관련인이거나 학생대표, 교원들이었다. 취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뉴스 가치 판단에 있어 경직돼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학사, 학교 정보, 행사 관련 11건, 총장 동행 관련 5건, 등록금 관련 3건, 장애인 문제, 취업 현실 지적, 민중가요 등 대체로 무거운 주제가 주를 이뤘다. 새내기가 된 학생의 목소리나 재학생의 이야기, 학과별로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등을 보도했으면 편성의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줬을 것이다.

### 지나호를 말하다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회 주희진(인문·언어인지 12)

##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은 외대학보

먼저 지난 호는 지난 학기와 달리 1면의 맨 위에 지면안내를 놓았다. 이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 평가한다. 독자의 관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본지를 자주 보지 않는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내용이 부족한 기사가 있었다. 바로 1면에 새 총장 취임식 기사다. 취임식은 2월 말에 있었던 일로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우리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적고 부실했다.

다음으로 기사 작성 시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 등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면의 보궐선거기사에서 '상경대학과 서양어대학'이라고 잘못 쓴 부분이 있었다. 더불어 기사에는 되도록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2면의 학생권리 장례식을 다룬 기사에서 '비대위를 인준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인준'이라는 단어는 단번에 뜻을 알

기 어려운 단어다. 또한 표제 '휴산(Hufsan)의 권리 죽다'에서 '휴산(Hufsan)'의 뜻을 독자가 모를 수도 있다. 이 때 '휴산'이라는 글자 아래 단어의 의미를 달아줬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에 맞는 적절한 사진을 넣을 필요가 있다. 4면의 공릉동 외국인 교원 아파트 기사를 보면, 글자만으로 노후화 정도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아파트 사진이 있었다면 독자는 그 정도를 직접 느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9면의 기사에서는 명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 서울배움터에는 명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명수당이 글로벌배움터에 있다'는 설명과 이곳의 사진을 넣어 기사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였어야 했다.

## 독자위원회

### 서울배움터

권대웅(사회·미디어 07)  
김채민(교육·한국어교육 14)  
조성은(일반·중어중문 13)

### 글로벌배움터

유지인(동유럽·헝가리어 12)  
정예지(국제지역·프랑스 14)  
주희진(인문·언어인지 12)

독자위원회는 모집과 선발을 거쳐 각 배움터 별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학기동안 매호 학보가 발행된 후 학보를 비평합니다.

## 긴 터널에서의 동행

직원의 말풍선

김지원  
서울배움터 학생생활상담  
연구소 전임상담연구원



나는 가끔씩 살아가는 것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아름답고 밝은 터널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그 순간 걸음걸이도 매우 가벼워 뛰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 터널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계속 나아가면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누군가는 뒤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도망갈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 공포를 못 이겨 오도 가도 못하고 거의 공황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

기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아닐까 싶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밝은 터널에 다다를 것이고, 뒤로 도망쳤던 사람도 도망치다가 눈이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지면 터널 안이 그리 위협적인 곳이 아니라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주저앉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을까?

나도 분명히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위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명한 상태로 순간순간에 집중이 되지 않거나,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잦을 때 단적으로 터널 속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굳어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어둡고 무서운 터널 속에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 혼자서 어떻게든 여

기서 빠져 나가야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 상담자가 학생과 그 긴 터널을 동행하며 터널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위협적인 존재가 없다고 안심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면 점점 학생들이 이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고 터널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상담자가 아닌 다른 동행자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행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길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동행자가 필요했었다. 이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고 결국 삶이라는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만 평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 참을 수 없는 침묵

▲"어쨌든 나는 세상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노동조합을 소재로 해 이목을 끌고 있는 웹툰 '송곳' 주인공의 독백이다. 대형마트의 관리자인 주인공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걸림돌'이 돼 나서면서 만화는 진행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학교 내 청소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과도 매우 흡사하다.

▲최근 서울권 대학들에서 벌어진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와중에도 우리학교는 유난히 고요하다. 타대와 비교해 노동환경이 더 낫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간접, 비정규직으로 고용됐으며,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임금, 상시적인 고용 불안, 협박·공갈 등 부당한 노동행위

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법적인 협상권리를 가진 노조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용역업체가 재단의 자회사인 (주)동원안전시스템이라 노조를 결성하는 데 공공연한 탄압이 있기도 하다. 한 청소노동자는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관련자들이 대거 해고되기도 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비정규직들이 조합비를 모아 조직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

▲지난 해 '한겨레21 991호'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청소노동자 노조가 설립되며 개선된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조의 긍정적 역할을 조망했다. 이번 파업에서도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노조의 조직화로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난 3일 14개 사업장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 1천 4백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11일 경희대 청소노동자 노조가 학교 측과 시급 인상 합의를 도출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와 파업은 우리학교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학교에도 '누군가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향상시키려는 현재 흐름에 답습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학 본부와 용역업체는 더 이상 함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노동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크게는 대학의 직접 고용, 생계임금 충족, 일자리에서의 동등한 대우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침묵을 참고 있을 수는 없다.

사설

## 새롭고 멋진 세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TV방송은 일본보다 8년 늦은 1961년에 시작됐으며, TV 수상기는 1966년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의 도움을 받아 금성사에서 최초로 출시됐다. 이후 우리 기업들은 품질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으며 이미 정상을 차지한 일본 기업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예를 들어 2005년 PDP TV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 상위 10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 기업이 10곳으로 국내 기업의 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200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글로벌 시장의 TV 판매 대수에서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월해 1위가 됐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의 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연구와 경험으로 오랫동안 브라운관 TV의 최강자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 기업들은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는 일본을 추월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일본 기업이 등한시 한 디지털 TV에 천문학적 개발비를 투자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일본의 막강한 전자제품 회사들과 중국의 신흥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를 탐색하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교훈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정해진 목표나 내용에 따라 공부했으며, 같은 조건에서 다른 학생과 경쟁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제시한 경쟁의 틀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학교 성적을 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로 받아들여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가능성과 경쟁의 마당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직면한 중요한 환경 변화는 급격한 글로벌화의 이행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증가율은 세계 3위이다. 우리 상품은 글로벌 시장 곳곳에 유입됐으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새로운 경쟁과 변화의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학습경험에서 받았던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외국어 교육과 지역학 학문 탐구에 매진해 왔고, 그를 통해 많은 외대인이 경쟁의 마당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은 외대 교문을 드나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됐다.

봄날, 마음을 열고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새롭고 멋진 세계를 꿈꾸자.

##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초석부터 다시 깔아야

이번 학기 우리학교 신입생은 대대적인 '학제개편'의 길에 올랐다. 서울배움터의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등을 비롯한 6개 단과대학에서 학제개편이 이뤄졌고 LD 학부가 신설됐다.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인문대학이 학부제로 변경, 경성대학에 경제학과와 국제경영학과를 합한 국제금융학과와 한국학과가 신설됐다. 이번 광역화의 가장 큰 이유는 전공언어를 넘어 해당 지역 등에 대한 학문을 넓힌다는 것이다.

첫 시작, 잘 되고 있을까.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 아직은 이르나 벌써부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가장 먼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세워진 LD학부부터 그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LD학부로 소속 변경한 구 자유전공학부 학생과 LD학부 신입생 사이 갈등으로 한 학부에 두 학생회가 꾸려질 뻔했다. 이는 LD학부 설립 이전에 약속한 '자유전공학부와 LD학부의 연속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외교사관학과'를 표방한 것 역시 '고시 학원'과 다를 바 없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혜택의 세부조건은 신입생 합격 후 제시하는 등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 시켰다.

서양어대학과 동양어대학에서는 수시입학생과 정시입학생을 차별해 문제가 됐다. 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한 수시생과 달리 광역화로 선발된 정시생은 과방출입을 금지당하는 등 학부제 첫 시작부터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다. 선후배가 어울려 학교생활을 만들고 그 명맥을 이어가던 모습은 이번 학기 찾아보기 힘들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가 보이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빛이 희미해져만 간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 60년, 대학구조조정의 위기가 닥칠 앞으로 등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리학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학사제도의 시급한 안정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캐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신민지

부장 이은결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 전설을 만들어가는 두 바둑기사, 그들에게 듣는 바둑 이야기

▼ 한국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포즈를 취한 조한승 9단(왼쪽)과 최철한 9단. 최철한 9단은 서울배움터에서 두 사람이 치렀던 대국인 '외대더비'를 떠올리며 "모교에서 큰 대회를 처음 치러봤기 때문에 다른 대국보다 의미가 남달랐다"고 말했다.

## 우리학교 출신 프로바둑기사 조한승 9단(중국어 02), 최철한 9단(일본어 04)

지난 해 바둑을 모티브로 직장인의 삶을 그려내며 6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끈 웹툰 '미생'. 미생을 본 학생은 많지만 바둑계에 우리학교 출신 프로바둑기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드물다. 2012년, 우리학교 출신 프로바둑기사 조한승 9단(중국어 02)과 최철한 9단(일본어 04)이 서울배움터에서 경기를 치른 것을 두고 바둑계는 '외대더비'라는 말을 붙였다. 조한승 9단은 지난 1월, 가장 많은 바둑기사들이 우승하고 싶은 대회로 손꼽는 국내 최고(最古) 대회 국수전(國手戰)에서 우승하며 역대 5번째로 국수전 3연패 이상에 성공한 기사가 됐다. 최철한 9단 또한 1968년 이래 단 7명만 우승에 성공했던 명인전(名人戰)에서 우승해 8대 명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바둑계에 한 획을 그으며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 프로바둑기사를 만나 어렵게 만 느껴지는 바둑의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외** 2000년대 입학한 동문 중에는 프로바둑기사 선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조** 그 당시에 수시모집전형 중 자기추천제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저도 그 전형으로 입학했고 대부분의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어과와 일본어과에 입학한 기사들이 많죠. 우리나라 외에는 중국과 일본이 바둑을 잘 두는 나라로 꼽히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 저처럼 졸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외** 두 분이 바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최** 아버지가 바둑을 아주 좋아해서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7살 때부터 배웠는데 재능이 있었기에 빨리 늘었죠(웃음). 그러다 운 좋게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바둑교실에 들어가게 돼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게 됐어요. 저는 9~10살부터 입단을 목표로 해 다른 사람보다 이른 나이인 13살에 입단했습니다. 좋아하고 잘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바둑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 없었죠.

**조** 저도 친척 어른들이 바둑을 좋아했는데, 명절 때마다 바둑을 두는 걸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 기원에 찾아갔지만 바둑을 배우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 바둑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시간 바둑을 두면 저는 세네 시간씩 바둑을 뒀어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잘하게 될 수 밖에 없었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입단을 했으니 빠른 편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보니 남들보다 잘하게 됐고, 그렇게 프로의 길을 걷게 됐죠.

**외** 두 분이 오랜 기간 알아온 만큼 여러번 바둑을 뒀을 텐데요, 서로의 바둑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바둑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요?

**조** 최철한 9단은 공격적입니다. 한 마디로 끝을 보는 바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둑도 보통은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이득을 취했다 싶으면 물러설 수도 있는데 최철한 9단은 아예 '여기서 끝을 내자'는 식으로 바둑을 두죠.

**최** 조한승 9단은 부드럽지만 강한 바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거나 조한승 9단은 유연하니 부러지지 않죠. 전투적인 바둑도 부드럽게 상대하면서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외** 최철한 9단은 공격적인 바둑을 두다보니 '독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최** 그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승부를 겨루는 직업이기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오히려 그 별명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별명을 싫어하세요. 독사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흉물이다 보니 좋을 리가 없겠죠.

**조** 바둑을 두고 별명을 붙인 것인데 혹시 바둑 외적인 모습까지 그렇게 비쳐질까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외** 강렬한 별명도 있지만 청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불편한 만큼 바둑을 두실

때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나요?

**최** 어렸을 때부터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데, 이제 적응됐지만 경기 중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바둑에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선수의 옆에서 숫자를 세는데 이것을 '초읽기'라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 세어 10을 부르면 시간패, 곧 실격패를 당하죠. 초읽기가 들리면 조금 더 신속하게 둘 수 있겠지만 귀가 불편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순발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바둑을 두면서 극복하고 있어요. 사실 귀가 불편하다는 것도 제가 시간패를 당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옆에서 초읽기를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TV를 통해 중계가 됐고 저를 응원하셨던 분들에게 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바둑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제 상황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이 응원해주 마음이 편했죠.

**외** 조한승 9단의 별명 중 하나는 '바둑계의 기부천사'입니다. 2008년 제20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 상금 전액을 쓰촨성 지진 피해 성금으로 내놓으면서 시작해, 2012년 국수전 상금 전액을 현역으로 복무했던 이기자부대와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등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부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조** TV를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쓰촨성 지진에 기부를 했던 것도 TV를 보고 결심했던 것이죠. 방송으로 본 참혹한 모습에 당시 결승전에 같이 올라갔던 이세돌 9단과 경기 전날 기부를 하자고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기자부대에는 제가 군 복무 중 아시안게임 출전 시 받았던 깊은 배려를 갚는 의미였고요.

**외** 오랜 경력만큼이나 수많은 경기를 치러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 어떤 것이었나요?

**최** 저는 이창호 9단을 처음 꺾고 우승을 거뒀던 국수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창호 9단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강자였던 반면 저는 어린 신예 기사였기에 한 수 배워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우상을 꺾으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저는 이창호 9단의 스승 조훈현 9단과의 대국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프로가 됐을 때 이미 나이가 많으셨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훈현 9단을 넘고 이창호 9단을 넘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죠. 2003년 쯤 국제대회에서 운 좋게 조훈현 9단을 이긴 적이 있는데 그 때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를 이겼을 때 생기는 자신감은 실력 향상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외** 웹툰 '미생'이 바둑을 통해 사회생활을 풀어낸 것처럼 흔히 바둑을 통해 인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많이 합니다. 선배님들도 바둑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인생의 교훈이 있나요?

**조** 바둑에는 여러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을 공격하기 전에 나의 안위부터 살펴라' 같은 말이 있는데 인생에 비유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격언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바둑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복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부가 난 후 처음부터 경기를 되짚어보면서 자기의 수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복기를 통해 인생에서도 중요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최** 단순하게 말하면 '실수를 하지 말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수를 줄이자'입니다.

**외** 현재 바둑이 예전만큼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국내에서 바둑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최** 게임 등 다른 놀이문화가 많아져서 아닐까요. 예전에는 바둑을 두려면 직접 만나야하니 기원에 자주 모였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둘 수 있죠. 요즘 추세와는 전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바둑을 두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 그런 점을 실감할 때도 많죠. 놀이문화의 변화도 있었지만 교육환경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바둑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다른 공부할 거리가 많다 보니 어린 친구들이 바둑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바둑 특기생들에게 가산점을 많이 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바둑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면이 있고 사회적 위상도 높으니 어린 학생들이 바둑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은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체기라고 봐야 합니다. 바둑계에는 큰 숙제일 수 있죠.

**외** 바둑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프로기사인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바둑의 특별한 매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변화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프로가 된지도 거의 20년 이 다 돼가지만 항상 새로워요. 또 한 가지는 승부를 가리는 데 다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벌어졌던 판정 문제가 바둑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기는 하지만 개입할 여지도, 심지어 거의 필요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스포츠입니다.

**최** 저도 끊임없는 변화를 장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국을 만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바둑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체스는 지금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한참 남았다고 해요. 그만큼 변수가 많아 지겹지 않죠. 머리로 하는 게임 중에서는 바둑을 따라올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 이번 해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조** 쉽지 않겠지만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바둑계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바둑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 조한승 9단이 바둑계의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해 세계대회에서 중국에게 조금 밀렸던 것이 마음에 납니다. 중국에 밀린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사진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